

이소노카미 신궁의 신성한 닭

이소노카미 신궁에서는 경내의 고요함이 수탉의 울음소리로 깨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신궁에는 20~50 마리의 닭이 살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1980 년대에 처음으로 닭 몇 마리가 기증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신궁에는 정기적으로 닭이 기증되어 수탉과 암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닭은 미에현의 이세 신궁을 비롯해 다른 신사에서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닭은 오랫동안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와 수호신의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6 세기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어떤 지역에서는 벽사를 위해 흔히 문이나 출입구에 닭 그림을 붙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수탉은 동틀 녘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동물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건국 신화에는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를 은둔처에서 불러내어 세상에 빛을 되돌리기 위해 많은 신들이 수탉을 모아 울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내에는 다양한 품종의 닭이 나무 그늘 아래서 벌레를 잡아먹으며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길게 울도록 품종 개량된 '장명계'라는 품종도 있습니다.